

## News

### 카뱅 자극받은 은행들, 제각각 '금리인하요구권' 바꾼다

이데일리

5대 시중은행 중 3곳, 절반 가까운 수준에 그쳤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 보면 농협이 96.4%로 가장 높았는데, 신청 건수를 산식이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 반면 카카오뱅크는 금리인하요구권 혜택 받은 고객은 작년 9만명으로 5대 은행 합계 인원을 상회. 이에 금융당국은 18개 국내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TF 구성

### 채권금리 오르는데 주담대 금리는 왜 떨어지지?

매일경제

금융시장에서 장기채권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반대로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주목 시중은행 조달 비용에 영향을 주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 2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0.83%를 기록해 전달보다 0.03%포인트 하락했기 때문

### 우리은행,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도 30~80% 배상한다

서울경제

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라임펀드 분조위의 분쟁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의 기본 배상비율을 55%로 결정 이번 조정안이 적용되는 라임펀드는 우리은행이 판매했다가 환매가 중단된 라임Top2·플루토·테티스 등으로 총 2,703억 원 규모

### 뉴딜금융 때문에 위축 없었다...은행권, 기술신용대출 다시 증가세

CEO스코어데일리

올해 1월 기준 국내 은행권의 기술신용대출 잔액, 건수는 각각 270.45조, 68.8만9건으로 집계. 지난해 12월 기준 잔액 266.85조, 68.56만건보다 각각 1.3%, 1.1% 증가 기술신용은 상대적으로 운영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의 혁신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금전적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P2P업계 첫 마이데이터 사업자 나오나...피플펀드, 예비허가 신청 검토

디지털투데이

15일 업계에 따르면 피플펀드는 금융당국이 최근 실시한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수요조사에 '예비허가 신청 의사'를 전달 피플펀드가 마이데이터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어 P2P금융 업계 첫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탄생할지 주목

### 폭탄으로 돌변한 실손보험... 60세 이상 가입자 보험료 100% 오를 수도

매경이코노미

가입자 3800만명.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급등. 이는 그간 실손보험 판매에 따른 손실이 워낙 컸던 영향 높은 손해율의 원흉으로는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가 첫손가락에 꼽힌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비급여 진료를 남용하기 일쑤

### 시중금리 오르는데...생보사,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

이코노미리뷰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점차 상승세를 보임에도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계속 하락. 금융당국의 권고에 맞춰 생보사들이 일제히 금리 조정에 나선 영향. 지난달 생명보험사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평균 금리는 6.46%로 전월 6.65% 대비 0.19%포인트 하락.

### '동학개미' 열풍에...증권사 자산 126조 급증

서울경제

동학개미 열풍으로 인해 증권사들의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매매 수요가 급격히 커지면서 미수금과 보유 현금이 늘어났기 때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증권사 57곳의 자산 총액이 지난 2019년 말보다 125조 9,000억 원(26.1%) 증가한 608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